"안쓰는 컴퓨터 기증" 적극행정 수기…홍보콘텐츠 대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418266?sid=100

기사내용 요약인사처, 홍보콘텐츠 14개 수상작 시상  
  
  
  
[세종=뉴시스] 적극행정 홍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들. (자료= 인사혁신처 제공)[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재물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컴퓨터 불용품을 소외계층에 기증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편 공무원의 수기가 적극행정 홍보콘텐츠 대상을 수상했다.인사혁신처는 14일 적극행정 홍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14점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일 잘하는 공무원을 소개합니다'를 주제로 영상, 수기, 표어·구호(슬로건)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했으며, 총 151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수기 부문 대상은 '담당업무만 했을 뿐인데? 가슴 한편이 따뜻했던 행동과 실천'이 차지했다. 보급계 물품 담당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재물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컴퓨터 불용품을 정보 소외계층에 기증한 사연을 진솔하게 담아냈다. 최우수상은 해양경찰청 직원이 어린이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과정에서 민간기업과 관계부처를 적극 설득하는 내용의 '아기상어도 구명조끼를 입어요'와 수도검침원이 소외계층의 누수 문제를 해결하고 검침 과정에서 인명을 구조한 사례를 담은 '검침원, 우리는 이미 적극행정가입니다'가 각각 받았다.우수상은 서대문의 길고양이 정책을 담은 '모두를 위한 따스한 혁신, 동물복지와 적극 행정' 등 3점에게 돌아갔다. 영상 부문 대상에는 서귀포해양경찰서에서 저수심 해역 익수자 구조를 위해 발명한 서프보드에 관한 적극행정 사례를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를 패러디해 흥미롭게 표현한 '공익을 도모하는 적극행정'이 받았다. 표어·구호 부문 대상으로는 적극행정을 인쇄기로 출력하면 그 결과물로 국민행복이 인쇄된다는 의미를 담은 '적극행정, 국민행복을 출력합니다'가 선정됐다.인사처는 수상작을 웹툰과 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조성주 인사처 차장은 "공모전을 통해 적극행정과 공직문화 혁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여전히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따뜻하고 적극적 행정을 통해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삼육대 류한철 교수팀, 세계 최고 권위 컴퓨터비전 학회에 논문 게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95396?sid=102

삼육대학교는 최근 인공지능융합학부 류한철(사진) 교수가 이끄는 휴먼&비전연구실(Human and Vision Lab.)이 '유럽컴퓨터비전학술대회(ECCV) 2022'에 논문을 게재했다고 16일 밝혔다. ECCV는 국제컴퓨터비전패턴인식학술대회(CVPR), 국제컴퓨터비전학술대회(ICCV)와 함께 세계 최고 권위의 인공지능(AI) 학술대회로 꼽힌다.논문의 제목은 '인스타그램 필터 제거를 위한 빠르고 가벼운 다중 스케일 색상 집중 네트워크(CAIR: Fast and Lightweight Multi-Scale Color Attention Network for Instagram Filter Removal)'다. 류 교수 연구실의 여운하 박사과정과 오왕택·김영일 학부생, 본교 건설기술및관리연구소 강경수 박사가 참여했다. 연구팀은 테라헤르츠 이미지 노이즈 제거 연구과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이미지에 추가된 필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인공지능 네트워크 구조를 경량화해 다른 알고리즘과 비교해 빠른 추론 속도를 확보, 색상 정보를 분석해 원본 색상을 정확하게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이 기술은 열화된 영상의 복원과 이미지 해상도 향상, 객체 탐지, 이미지 분류 등 다양한 컴퓨터 이미지 처리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다.한편 류 교수의 휴먼&비전연구실은 박사과정생 1명과 학사과정생 7명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연구팀이다.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美, 러시아에 생화학무기 소재·양자 컴퓨터 등 수출규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789977?sid=104

미국 정부는 생화학무기 생산에 활용 가능한 소재를 러시아에 대한 수출규제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현지시간 15일 밝혔습니다.미국 상무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지속함에 따라 대러시아 수출 통제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번 추가 규제에는 양자 컴퓨터 등 첨단제조업 분야에 쓰일 수 있는 품목들도 추가됐습니다.미국 상무부는 또한 러시아에 부과해온 수출 등 산업부문 규제를 친러시아 국가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도운 벨라루스에도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미국 상무부는 "규제 품목이 벨라루스를 통해 러시아로 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이번 조치는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진 날에 전격 단행된 것으로,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의 제재 대상 추가 등과 함께 이뤄졌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전화] 02-398-8585[메일] social@ytn.co.kr

독거노인 건강 지킨 AI…"의료+슈퍼컴퓨터 결합 본격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268248?sid=105

네이버헬스케어 "맥락 파악·정보 자동 분류 기술로 전문 인력 지원""'하이퍼클로바'는 5천600억개 데이터셋이 반영된 슈퍼컴퓨터다. 이 슈퍼컴퓨터로 35세 여성의 목소리를 사용하는 인공지능(AI)을 구축하고, 해운대구 독거노인 100명에게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비롯한 건강 상태를 전화로 체크하도록 했다. 약 1년이 흐른 현재, 95%가 사용을 지속하고 있다. 기술 회사가 의료계와 손잡고 선보일 수 있는 것이 이런 게 아닐까 싶다."나군호 네이버헬스케어 소장은 16일 지디넷코리아 주최로 열린 '4차 산업혁명 페스티벌 2022'의 부대 행사 ‘디지털 헬스케어 포럼 2022’에서 이같은 사례를 소개했다. 별도의 데이터셋 구축 없이, 대화 맥락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대화형 AI를 의료 서비스에 접목해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나군호 네이버헬스케어 소장앞서 나군호 소장은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 트렌드를 소개했다. 증강·가상현실(AR·VR)과 전 주기 데이터 통합 분석을 활용한 치료, 의료 업무 간소화 기술, 소프트웨어(SW) 기반 '디지털 치료제' 등이 주요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고 짚었다.이런 트렌드는 국내보다 국외에서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VR이 의료 분야에 접목된 사례로 의료 기기용 AI 컴퓨팅 플랫폼을 구축해 신체 장기들을 시각화하도록 지원하는 엔비디아, VR 로봇 수술을 선보인 인튜이티브, 만성통증 완화용 VR 기기를 출시한 어플라이드VR 등을 언급했다. 베트남 참전 군인을 대상으로 VR 기반 PTSD 치료를 실시한 결과, 환자 전원이 극복 효과를 얻었다고도 덧붙였다.디지털 치료제 서비스도 상당수 출시됐다. 우울증과 불안 완화를 위한 해피파이헬스 '인텔리전트 힐링 플랫폼', 우울증 치료 챗봇 '우봇', 금연 보조 앱 '클리코틴' 등이 일례다.질병 예방 및 발생 후 치료, 치료 후 관리까지로 헬스케어 영역을 확대하는 '전 주기 치료'의 경우 체중 감량, 당뇨 등의 질병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출시됐다.산재돼 있는 의료 데이터를 통합해 분석하려는 흐름은 국내에서도 나타나는 중이다. 의료 마이데이터 앱 '마이헬스웨이', '나의 건강기록' 등이 출시됐다. 해당 앱들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분산 저장돼 있는 이용자의 의료 정보를 통합해 데이터셋으로 구축해준다. 이런 데이터셋은 향후 의료 AI를 거쳐 보다 개인화되고, 편의성이 개선된 서비스로 이어질 전망이다. 핀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등 해외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통합하고, 통합된 데이터로 효율적 치료를 꾀하는 추세라고 나 소장은 분석했다.네이버헬스케어는 임직원에 기본적인 진료와 더불어 개발자 등 사무인력에 특화된 근골격 질환 대상 종합 솔루션, 건강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네이버의 AI 서비스 '클로바'를 활용한 의료 서비스 고도화를 연구 중이다. 환자의 병력 청취 자동화 기록, 이를 토대로 한 진료 추천 솔루션, 검진 결과 이력 관리 및 후속 진료 안내, 운동 치료 콘텐츠 제공 등이 이뤄지고 있다.해운대구 독거 노인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이런 일환에서 이뤄졌다. 해운대구뿐 아니라, 성남시 관할 보건소에도 능동감시 및 자가격리 대상자의 상태 관리에도 활용됐다. AI가 이용자의 발언 내용을 분석해 건강·식사·수면·운동·외출 등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이상 내역이 발견될 경우 보건소 담당자에 알림을 지원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지원했다.  
  
  
  
하이퍼클로바는 맥락을 이해하는 대화 기능을 구현했다그 외 AI 기반 병원 예약 서비스에 클로바 챗봇 빌더가 활용되기도 했다.나 소장은 "다음달 '클로바노트'를 통해 간호사 근무 기록 등 의무 기록을 자동 저장 및 분석하는 작업도 슈퍼컴퓨터로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자컴퓨터도 풀기 어려운 '하이브리드 양자내성암호' 상용화 주도할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16196?sid=105

정현철 노르마 대표기존 알고리즘과 속도차이 없고모바일 사물인터넷 등에도 적용  
  
  
  
 "양자컴퓨터 상용화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용과 성능 면에서 효율이 높은 '하이브리드 양자내성암호(PQC)'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정현철 노르마 대표는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암호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전에도 보안 이슈는 많이 불거졌지만 기본 알고리즘 자체가 문제시된 적은 없었다"며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지난 7월 PQC 표준을 공표한 것은 그만큼 양자컴퓨터 시대가 빨리 오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무선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솔루션에서 출발한 노르마는 사물인터넷(IoT) 보안에 이어 현재 PQC 기술 상용화에 열중하고 있는 굴지의 보안 기업이다. PQC는 양자컴퓨터가 풀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수학 문제를 기반으로 하는 암호 기술이다. 하드웨어 장비가 필요한 '양자키분배(QKD)'와 달리 기존 인프라에 소프트웨어만 적용하는 형태로 구현이 가능하다. 노르마의 하이브리드 PQC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송계층보안(TLS)을 지원하는 방식에 PQC 알고리즘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기술이다. 정 대표는 "기존 알고리즘과 비교해 속도 차이가 거의 없고 모바일과 사물인터넷(IoT) 등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며 "PQC 도입 시기로 예측되는 2030년까지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현재 인프라를 사용하면서도 양자 컴퓨터에 대비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노르마는 최근 여러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손잡고 PQC 상용화에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재해방지센터 구축과 홈네트워크 단지서버·가구 월패드에 PQC 기술을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한 데 이어, SK텔레콤의 이동통신망에도 PQC 시범 적용을 준비하고 있다. 해외 완성차 업체와도 긍정적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 대표는 "고속도로에 과속 카메라가 나타나면 차가 알아서 속도를 줄이거나 다른 차량의 사고 정보를 교환하는 V2X가 이미 상용화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자율주행 통신 시스템이 해킹을 당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새로운 솔루션 도입에 업계가 열려 있다"고 전했다. 그밖에 금융 인증이나 VPN(가상사설망) 서비스를 비롯한 B2C 적용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르마는 해외 시장도 적극 공략하는 가운데 보안업계 첫 유니콘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다. 정 대표는 "동남아와 유럽에서 하이브리드 PQC에 대한 공급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조만간 수출 소식도 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B2C와 B2C 시장에서 다양한 레퍼런스를 발전시켜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회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PC방도 아닌데…툭하면 컴퓨터 바꿔주는 학교 속사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16627?sid=102

넘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학교마다 돈 쓰기 골머리전년도에 과학실 공사했는데과학교구 교체 예산 또 내려와툭하면 고사양 컴퓨터 바꿔연말에 추경예산 급하게 풀려울산 학교들 교문까지 싹 바꿔시설보수 몰려 공사업체 품귀교육부 돈 빨리 쓰면 인센티브교육청 방만재정 부추기기도◆ 방만한 교육재정 ③ ◆   
  
  
  
 13일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체육관과 급식실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아이들이 하교하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와는 무관함. [한주형 기자] 지난해 강원도 일선 학교들은 교육청이 내려보낸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예산을 제한된 기간 안에 소진하느라 진을 뺐다. 강원도 A고등학교는 2020년에 과학실 1개 교실을 리모델링했다. 여기에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청에서 배정받은 예산 3000만원이 쓰였다. 바닥재 등이 모두 새것으로 교체됐다. 이후 지난해 말 과학실 교구 교체 명목으로 예산이 또 내려왔다. 이번에는 교육청이 자체 현장조사를 통해 전체 과학실(4개 교실)에 대해 일괄적으로 2억원을 교부했다.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추경을 편성해 내려보낸 것이다. 학교 측은 2억원의 사업비로 과학실 3개 교실 리모델링과 3D프린터, VR(가상현실) 장비, 터치스크린, 고사양 컴퓨터 등 고가 장비를 사들였다. 이를 두고 학교 안팎에선 예산 낭비 논란이 불거졌다. 대규모 예산 소진을 위해 멀쩡한 교구를 교체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학교 관계자는 "갑자기 2억원을 쓰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며 "급한 대로 값나가는 교구를 구입해야 했다"고 말했다.교육청 예산 낭비 논란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 충북에서는 충북도교육청이 초·중학교 체육 교구 구입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학교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균등 지급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당시 도내 초·중 체육 교구 구입비 지원 사업 총 예산은 42억원 상당으로, 학교 규모와 상관없이 초등학교는 1개 학교당 1278만원, 중학교는 1개 학교당 770만원이 일괄 배당됐다. 당시에도 일부 학교는 돈을 제때 쓰느라 고가의 체육 설비를 구입했다.지난해 말 울산에서는 일선 학교들이 시설 개·보수를 하는 공사업체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기도 했다. 공사업체는 한정돼 있는데 울산시교육청이 내려준 돈을 쓰려는 학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당시 울산시교육청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통교부금 1500억원을 확보해 600억원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 추경 당시 일선 학교에서 요구한 돈은 187억원. 나머지 400억원은 뚜렷한 용처 없이 일선 학교에 풀렸다. 교육청 관계자가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갑자기 예기치 못한 예산이 오다 보니까 학교에서 업무 부담을 느낀 것은 사실"이라고 밝힐 정도였다.울산 지역 일선 학교 수는 437곳. 교부금 불용 처리를 피하기 위해 학교마다 올해 2월까지 5개월 안에 평균 1억3000만원을 써야 했다. 돈을 쓸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일선 학교들은 교실 리모델링, 놀이시설 교체 등 복잡한 입찰 과정이 필요 없는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B초등학교는 올해 초 2000만원을 들여 교장실과 교무실을 리모델링했고, C고교는 7000만원을 들여 교문을 교체했다. 울산 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는 "시설 교체와 개선이 필요한 학교도 있겠지만 본질은 돈이 있으니까 쓴 것"이라며 "갑자기 내려온 돈을 사용할 만한 곳을 찾고 정산하느라 학교 행정실과 교사들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지역 교육청들이 설립한 체육시설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경기도 도당학생체육관과 부천학생수영장은 당초 설립 취지를 못 살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들 기관은 학교 체육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아 '학교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도교육청은 2개 기관에 올해에만 6억81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학생 활용도가 크게 낮다. 수영장을 주요 시설로 둔 도당체육관은 2019년을 기점으로 일반인 이용자 수가 학생 이용자 수를 추월했다. 1일 단위 수영장 이용자 수를 보면 이용자가 소수 학생에 집중돼 있고, 특정 시간대에는 아예 일반인에게 개방해 다수 학생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부천학생수영장도 1일 이용 가능 인원은 60명이지만 코로나19 전인 2018년 32명, 2019년에는 20명이 이용하는 데 그쳐 사실상 유휴 시설로 전락했다.교육부가 예산을 빨리 소진하면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교육청 방만 재정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재정 집행 효율성 제고라는 명목으로 교육청이 예산을 빨리 쓰고 덜 남기면 최대 100억원의 인센티브를 보통교부금에 반영하고 있다. 홍성우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은 "기간 안에 돈을 다 쓰면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있겠나. 미처 쓰지 못한 교육부 예산은 회계연도를 넘겨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년 학업성취도 평가 컴퓨터 적응형으로...협력수업도 도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043422?sid=102

게티이미지뱅크2025년에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생 수준에 맞춰 컴퓨터가 난이도를 조절하는 CAT 방식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1수업에 지도인력 2명이 배치되는 협력수업이나 기초학력향상지원사이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방식이 시도된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16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은 '기초학력 보장법' 제5조에 근거해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국가 수준 종합계획이다. 공청회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들은 협의회 등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향후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종합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어떻게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읽기·쓰기·셈하기 등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제공하고 기초학력 진단 시스템 고도화, 학생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다.초기 진단은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과 기초학력향상지원사이트(Ku-Cu) 등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부터 컴퓨터 기반 평가(CBT)로 이뤄지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하반기 컴퓨터 적응형 평가(CAT)로 전환한다. 또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플랫폼 등과 연계해 인공지능(AI)기반 학습 진단지원 체계를 2025년 하반기까지 구축한다. CAT는 CBT와 달리 학생 수준에 따라 문항을 다르게 내는 시스템으로, 학생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별되면 저난도 문항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체계적인 학습 지원을 위해 협력수업을 추진한다. 1수업에 2명의 지도인력 배치해 수업 중 즉각적인 보정지도를 통해 기초학력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지원청 단위로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확대배치하고 전문인력을 활용해 심리·정서까지 지원한다.담당 교원 연수도 체계화한다. 학습지원교육 숙련도 및 경력에 따라 기본-심화-전문가 연수 교육과정을 내년부터 신규 개발하고 2024년부터 운영한다. 초중학교 '학습지원 담당교원' 증원도 추진한다.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교(강)사가 방과후에 학생 수준에 따른 일대일 또는 소규모 보충지도도 시행한다.고영훈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여러 관계자 의견을 듣고 기초학력 보장의 여러 과제들을 중심으로 교육 현장에 꼭 필요한 지원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면서 “공청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9월 말 발표 예정인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간] 도시 광산에서 컴퓨터를 캡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40712?sid=004

“모든 것을 새것처럼 되살리다”  
  
  
  
라온북 제공 해마다 최신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사람들은 더 좋은 스마트폰을 기다리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다.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자 자연스럽게 컴퓨터 시장 규모는 줄어드는 듯했다.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회사 컴퓨터나 노트북은 이미 당연해졌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원격수업은 가정에서도 그 수요를 폭발시켰다.(주)월드와이드메모리 대표인 저자는 ‘되살리다(Re), 새것처럼(New), 모든 것을(All)’이라는 슬로건으로 중고 컴퓨터 업계에서 500억원 매출 신화를 만들었다.이 책은 도시 전체를 ‘광산’으로 보고 ‘중고 컴퓨터’라는 원석을 캐내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의 성공 스토리를 담고 있다.중고 컴퓨터 부품의 매입가를 전략적으로 공개해 고객의 신뢰를 얻은 방법, 기존 중고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정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업계 1위가 될 수 있었던 노하우를 들려준다.특히 중고 컴퓨터 업계 최초로 셀럽을 모델로 광고를 만들고 브랜딩을 한 사례를 이뤄냈다.저자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용산전자상가에서 배달 사원부터 시작해 모든 컴퓨터 부품의 흐름과 소비자의 생각을 파악했던 사업 배경 덕분”이라고 말한다.이 책에서는 고객들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직원들에게 최대한 보답하고자 고민하는 그의 사업 과정들을 엿볼 수 있다.무엇보다 저자의 흔들리지 않는 신념, 꾸준함과 성실함, 끊임없는 도전, 실행력, 간절함이 쌓인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살아남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중소기업 사장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새로운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최병진 지음ㅣ라온북ㅣ259쪽ㅣ1만8000원

원하는 학급 컴퓨터로 학업성취도 평가…이번엔 전산장애 없을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328671?sid=102

13일부터 초6·중3·고2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실시7일 국가학업성취도평가 접속 장애로 전면 취소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치르는 고2 학생들. /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서울=뉴스1) 나연준 서한샘 기자 =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처음으로 컴퓨터 기반 평가(CBT)가 도입되는 등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는 여러 변화가 도입됐다.12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10월28일까지 1차,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2차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사 실시된다.이번 평가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평가 대상이다. 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학급 단위로 신청해 응시할 수 있다.평가 대상은 연차적으로 확대, 2024년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모든 학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컴퓨터 기반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이다. 학생은 학교에서 선생님의 지도하에 컴퓨터나 노트북, 스마트기기 등을 이용해 평가에 참여한다. CBT 기반으로 평가가 바뀌면서 실제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이를 둘러싼 환경을 현실적으로 재현하는 등 다양한 문항 유형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단 CBT 기반의 시험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7일 컴퓨터 기반 방식으로 실시될 예정이었던 고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표집평가가 시스템 접속 문제로 전면 취소되기도 했다. 앞서 지필평가로 시험이 진행됐던 경우에는 시험이 취소된 경우는 없었다.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역시 동일한 컴퓨터 기반 시스템으로 치러져 또 다시 전산 오류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예비평가를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확인했다고 하지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취소에서 보듯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자율평가 부분은 예비평가 시행 후 코드 최적화 등 추가한 부분 없이 (시스템을) 안정화시켰다. 예비평가와 동일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평가원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역시 지난해 안정성 검증 절차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CBT 기반과 함께 주목해야 할 점은 자율평가라는 부분이다. 희망하는 학급은 모두 시험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응시 인원이 늘어나고, 보다 정확한 진단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문제는 '자율' 참여가 지키질 수 있는지다. 이미 부산교육청에서 관내 모든 학교에 필수 참여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일제고사 부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교육부는 교육감이 모든 학교에서 시험을 보도록 하는 것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일제고사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교육부는 교육청 차원에서 결과를 취합해 비교 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행정지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